

朝鮮有紋土器의 變遷

佐藤達夫*

李相均譯**

차 례

- I. 조선유문토기의 연구
- II. 조선 각지의 유문토기
- III. 조선유문토기의 편년
- IV. 조선유문토기의 변천

I. 조선 유문토기의 연구

조선에 있어서 석기시대의 조직적인 연구는 鳥居龍藏(도리이)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도리이 박사는 조선의 석기시대에 무문과 유문의 토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는 내륙지대에, 후자가 해안·도서에 분포함을 주목하여, 양자를 동일인종이 아닌 생활양식을 달리하는 집단에 의해서 남겨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浜田耕作(하마다)·梅原末治(우메하라) 박사는, 유문토기의 분포가 북조선에 편중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남북 양지역에 있어서 인종의 相違에 의한 것으로 고찰하였다. 우메하라 박사의 다른 논문에 의하면, 북조선의 유문토기를 남조선의 유문토기보다 이전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하마다·우메하라 박사의 견해에 관해서는, 도리이 박사의 비평이 있다.

藤田亮策(후지타) 교수는 석기시대 토기 중에 무문토기가 오래되고, 유문토기가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유문토기는 북유라시아에 분포하는 이른바 즐목문토기의 일종이라는 견해에서, 이것을 새롭게 즐목문양토기라 불렀다. 이러한 생각의 영향은 그후 오랫동안 존속되고 있다. 橫山將三郎(요코야마) 교수는 유문토기를 일본의 繩文토기의 종말보다 빠르고, 금속사용시기에 이르러 소멸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관동 동북의 전기

* 前 東京大學 教授 歷任

** 全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助教授